

“곧 경선, 대통령 만나 얘기”...윤장현 ‘가짜 권양숙’ 문자 268회

“시장님 꼭 재선해야 할텐데...이용섭 주저않았다” 등 허위 문자
윤 전 시장, 공천 탈락 후 돈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
검찰, 김 모 여인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기소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해 4억5000만원을 뜯어내고, 자녀 채용청탁까지 한 김모(여·50)씨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통화만 12차례, 문자메시지는 무려 268회나 주고 받았다.
휴대전화판매업을 했던 김씨는 자신 명의와 가족 명의 등으로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한 뒤 2차례는 권양숙 여사로 속여 통화하고, 나머지는 ‘권 여사(김씨 본인)’가 소개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를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속여 사기행각을 펼쳤다. 혼외자 양육자 역할을 할 때는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법함도 보였다. 윤 전 시장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지난 4월 이후 “생활이 어렵다”는 등 돈을 돌려달라는 느낌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묵살 당했다.
10일 검찰이 사기범 김씨를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4억 5000만원을 받고 취업 청탁을 한 이후에도 올 10월까지 권 여사 역할을 이어왔다. 김씨의 사기극은 지난해 12월 21일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입니다. 딸 비즈니스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첫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김씨는 이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시장과 통화를 한 뒤 ‘광주 메신저’라며 또 다른 자신인 김모 씨를 소개했다.
이후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출을 받아 2억원을 본인명의로 김씨가 알려준 계좌에 이체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지인에게 빌린 현금 1억원을 비서에게 지시해 비서명의로 무통장 입금했다. 이어 올 1월 5일과 1월 31일에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대출받아 본인 명의로 송금했다. 윤 시장이 돈을 보낸 통장은 모두 김씨 어머니 계좌로 확인됐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직 관리 자금이 필요하다. 이제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 전쟁이 시작될 거다’라며 공천을 염두한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1월 초에는 ‘어제 주미에 당 대표에게도 전화를 해 광주 시장 힘써달라 했다. 시정에만 신경쓰세요’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월 18일에는 ‘우리 시장님, 꼭 재선하셔야 할텐데. 어제 이용섭(현 광주시장)과 통화를 했고, 제가 만류했는데 알아들은 것 같다’고 했고, 1월 말에는 ‘이번 생신 때(문)대통령님을 조우해 말씀드렸다. 이용섭은 시장선거 불출마 하도록 주저 않았다. 큰 산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의 생일은 1월 24일이다.
윤 시장도 이 같은 김씨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일부 호응하는 내용이 담긴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접 ‘공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선’ 등 공천을 염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윤 시장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김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지역 유력인사 몇몇에게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권양숙 여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칭해 ‘권 여사님 뜻이 제 뜻이다. 국가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는 등의 허위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모 인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또 이번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미친 행동을 했다’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윤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은 단 한 푼도 계좌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광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은 “김씨가 승용차(수입차 2대)를 구입하는 등 생활자금으로 썼으며, 일부는 아들과 딸 명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또 최근 결혼한 딸의 집을 사는 데 보내는 등 혼수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김씨 가족의 재산 중 일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기 피해자인 윤 전 시장은 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직접 받아내야 한다.
검찰은 일단 실제 도와줄 능력이 없든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김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시장에 대해선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뒤, 나머지 혐의는 시간을 두고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 덕 베풀며 살아온 아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윤장현 전 시장 딸 SNS에 편지

“광주 애정 알기에 응원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

“많은 덕을 베풀며 선한 뜻으로 평생을 살아온 아빠(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윤 전 시장의 딸이 10일 가족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빠 윤장현’에게 쓴 편지가 외부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에게는 세 딸과 아들이 있다.
글에는 안과의사로 평생을 의료봉사를 하며 살아온 아버지께 대한 딸의 안타까운 심경과 잘 극복해달라는 바람이 담겨있다.
딸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 잊고 아빠 건강만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하늘님은 우리에게 다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십자

가만 지워주신다고 하잖아. 이번 십자가도 잘 견뎌보자. 이번에도 잘 해내리라 믿어”라고 썼다. 또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지만 4년의 인기를 만족스럽게 마치고 퇴임식 때 아빠의 긴 여정이 담긴 영상을 보는데 너무 자랑스러웠다”면서 “그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다가왔다.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의사 아버지 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의

술과 인술로 지역에서 인정받으며 수십년간 개인병원을 운영하다가 뜻 함께하는 후배들과 아시아, 아프리카로 여행 갈 때면 의료 봉사도 꼬박꼬박하던 아빠’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 아빠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천대했던 맘이 컸다. 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비공식적으로 후배들과 공유하기를 바랐다”며 “광주에 대한 아빠의 애정을 알기에 사회변화를 끌어내려는 아빠의 열정을 알기에 한마음으로 응원했는데...”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동구, 옛 남광주역 철도관사 50여년만에 복원키로

옛 남광주역 철도관사가 50여 년만에 복원된다.
광주시 동구는 “남광주역 직원들이 묵던 옛 철도관사를 복원하기 위해 올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광복 직전인 1945년 만들어진 옛 남광주역 철도관사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내부공간을 마을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잔여부지에는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철도역사 관련 전시공간도 마련한다.

관사 복원과 보존·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동구는 전문가·주민·상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복원된 옛 철도관사는 원도심 관광자원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광주역사는 지난 2000년 도심 철도 이설로 철도폐선 부지가 푸른길공원으로 거듭나면서 절거렸다. 옛 철도관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잔여부지에는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이전하며 개인이 소유해왔다.
/김용희 기자 kimyh@

“필립에셋 사기적 부정거래 최소 563억원”

광주지검, 수사 확대

엄밀석 필립에셋 회장을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필립에셋의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를 최소 563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경)에 따르면 필립에셋은 무인기 투자매매를 하며

53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587억원에 사들인 다음 3767억원에 매도했다. 이 중 주식식이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트려 판 주식 규모만 현재까지 5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모 업체의 유상증자 과정에도 엄 회장이 개입해 55억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납입’한 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

다.
검찰은 엄 회장이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8억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엄 회장은 구속 당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처럼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 회장과 필립에셋 간부 2명을 지난 7일 구속기소 했으며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으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회장은 또 2016년 12월 헬기 운송 사업체 ‘블루 에어’(Blue Air)를 인수한 뒤 2017년 8월 소형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체로 전환하고자 자본금을 늘리고 에어 필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0대 시절 무임승차 사과”...60년만에 버스요금 갚아 ‘화제’



○...70대 노인이 10대 시절 저지른 버스 무임승차를 사과하며 60여 년 만에 버스요금을 갚아 화제.
○...10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김모(78) 할아버지는 최근 서울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내 금호고속 사무실을 찾아 “62년 전인 16살 때 무임승차로 전복 전 주에서 순창까지 금호고속(옛 광주여

객)을 타고 갔는데 버스차장에게 꾸지람을 들었지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며 현금 10만원과 함께 사연을 적은 손편지를 전달했다는 것.
○...금호고속 관계자는 “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10만원은 매년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성금에 보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장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